

광주시민 9명 사망사고 낸 현산 1단계만 하락 대기업 위주 시공능력평가 건설현장 안전담보 못한다

시민 사망자는 평가 항목서 빠져
근로자 사망, 전체 근로자 대비 평가
조소섭 "도심 현장 많아 기준 개선을"

현행 대기업 위주의 시공능력평가 방식으로는 중
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 시
공능력평가시 사망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할 경
우, 사고 현장 근로자 사망자수만을 기준으로 할 뿐
현장 인근의 시민이나 행인 등의 사망자 수는 고려하
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 사망자수에 대한 감
점 적용시에도, 고용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사망자
수의 비율을 따져 평가하기 때문에 고용 근로자가 많
은 대기업은 같은 사망자 수일지라도 중소기업에 비
해 거의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학동 4구역 건물 붕
괴로 시민 9명이 숨진 사고를 일으키고도 올해 시
공능력평가에서는 '학동 참사' 관련 재해율 감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사망 사고에 주는 감액은 '근
로자'에만 적용되고 있어 '시민'만 사망한 학동 건
물 붕괴 사고는 감액 요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더
불어 사망자 감액 규정도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
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대기업의 시공능력 순
위는 다수의 근로자 사망자가 발생해도 변동이 미
비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조소섭 의원실은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의 평가 및 공시'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감액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0위로 한 계단
만이 하락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시공 능

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건설업계에서의
순위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다. 조달청 등급
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과정에 평균 재해율이 1배 이상 2
배 이내의 경우,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2배 초과와 경우 5%가 감액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 인
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
'시민'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사례처럼, 사망자가 발생
해도 대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에서 감액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사망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
에 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눠 계산하기 때
문에 상시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근로자가 적은
중소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을 보다 낮게 나오는 허
점이 있었다.

실제,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 동일하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현대건설은 재해를 관해서 감액이 안되고, 그 보
다 규모가 작은 태영건설은 5%가 감액됐다.

조소섭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국토
부의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
선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안전, 재해율 등의 내
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허점이 많다"면서 "도
심의 대형 건설 현장이 많은 만큼, 시행령과 관련
기준 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고는 내년 시공능력 평가에 적용될 전망
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 현장 실시 20일 오전 베트남의 쩌뎌뎌, 이란의 키미야 사담 아자예비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실시단이 무등산국립
공원을 찾아 주상절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외마스크·입국검사 완전해제 검토

방역당국 코로나출구 논의 속도

이 코로나19 유행세 진정을 계기로 일상회복
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머지않아 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
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
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이날 언급한 조정 대상 방역
조치는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
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
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서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
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단장은 입국 후 PCR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는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가 다르
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
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
와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다. /연합뉴스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생산 나선다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
모터스(GGM)가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
다. <관련기사 9면>

20일 GGM에 따르면 GGM은 이날 본사 대운
동장에서 열린 창사 3주년 기념식에서 '제2의 도
약'을 선포하며 전기차 생산계획을 발표했다.

GGM이 생산하게 될 전기차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이다.

GGM은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위한 보완설비
발주와 공사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생산
을 위해 신규 인력을 단계별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후 2024년 시험생산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양산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기
차 양산과 연계해 주간 근무만 운영되던 인력
운용을 2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GGM이 캐스퍼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
환경차 시장에 진입,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일자
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한국경제 압도적 1등 한국경제신문 MOBILE 한경

세계로 대도약!
응답하는 전남 행복시대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전남사랑 愛 서포터즈

전라남도는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가입대상 전남 이외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방법 온라인 및 서면(도청 누리집 내 신청 페이지 오픈(9.8.))
※ 신청문의 :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061)286-7791~7794
가입혜택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예정(할인가맹점 150여 개소)
※ 농수축산물 구매 및 숙박·레저·체험 등 입장 할인

전라남도 JeollaNamdo